



전라지역
은행나무

마을 지키는 할아버지 당산의 은행나무

✳	지정번호	순천-15-3-8-3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지정년도	2011		중흥리 240
	관리가관	순천		34° 53' 51.65" N
	수령	713년		127° 32' 07.25" E
	수고	25m		
	흉고둘레	5.3m		

비탈면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듯한 보호수(순천-15-3-8-3) 은행나무는 마을의 좁은 골목길 끝에 있는 산야의 초입에 있다. 은행나무의 나이는 713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25m, 가슴높이둘레는 530cm 정도이다. 원줄기는 3개가 위쪽으로 곧게 뻗어 있고 겹가지를 내어 나무모양을 만들고 있으나 가운데 줄기는 말라죽은 상태이므로 비어 있는 공간이 큰 편이다. 밑동은 충전재 처리의 외과수술 흔적이 많고, 나무껍질에서 새순이 나와 자라고 있다. 생육상태가 좋은 편이 아니다. 주변에는 석축이 쌓여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신목과 관련이 있다. 당산나무(당산목)는 마을을 지켜 주는 나무이다. 당산나무는 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여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중흥마을의 은행나무는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기는 나무이다. 해룡면에서는 중흥마을의 은행나무를 할아버지 당산나무라 하고, 인근의 대가마을(대가리) 은행나무를 할머니 당산나무라 하여 함께 마을의 안녕을 기원할 때에 제를 지내고 있다. 나무갓은 원추형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어른 5명이 안아도 팔이 10cm가 부족하다는 속설이 있는 나무라고 전한다. 예전에는 동네에서 어린아이들이 웅기종기 모여 숨바꼭질하는 놀이 장소로 가장 많이 알려진 나무이다. 한편 중흥마을의 은행나무 앞에는 임야 175㎡(53평)를 제주 양씨 순천 종중에서 1995년 5월에 중흥리 주민에게 희사하였다는 표지석을 2009년에 중흥리 주민 일동 이름으로 만들어 세웠다.